

“감염병병원 격리병실 최소 130개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시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고도격리병상 4개실과 일반격리병상(중환자실·일반실 포함) 등 격리병상을 최소 130개실은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이석구 총남대 의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도격리병상을 참고하면 우리도 2~3개 병상이면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 4개 병상을 제안한다"며 "일반격리병상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서울의 경우 136명까지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고도격리병상은 에볼라 등 고도감염병

질병관리본부 공청회서 제안
고도 4개·일반 128개 설치
평시 전체 절반 운영 가정매
연간 42억에서 94억까지
운영비 적자 발생 우려도

을. 일반격리병상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메르스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중도감염병을 격리·치료하는 시설이다. 이에 대해 권영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스템을

고쳤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수요예측 시나리오는 조금 다른 논리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운영 모델을 연구한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고도격리병상 4개와 일반격리병상 128개를 설치하고 평상시에 전체 병동의 절반만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2억 원에서 최대 94억원까지 운영비 적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평상시에 대기 병동과 교육 목적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음압병리시설과 비상시 추가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제압대학원 교수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환자 한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 나라 전체를 보호하고 의료진과 연구, 질병 안보 수준이 높아지면 엄청난 이득"이라면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경 아주대 공대교수는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로 신축 시 1,7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였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안이 다음달 도출되면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센터로

국립서울병원 포함 5곳 내달 1일부터

정신건강 증진·보건사업 지원 총괄

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편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다음달 1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뀐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상담·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전반을 다룬다.

진료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는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 등 5개 진료과는 신설하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한다.

나주·부곡·춘천·공주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책 등을 조정·활용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했다"며 "정신건강센터장 등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부터 무료로

올해부터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검진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검진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다.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간암의 발견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다.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한 차례, 1년에 2번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주 기자

미인들의 몸매관리 비결 '클렌즈'에 있다

기네스 펠트로 미란다 커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의 몸매 비결이 '클렌즈'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종 과일과 채소가 들어간 음료인 클렌즈는 몸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해독주스' '디톡스' 등으로 불린다.

잘못된 레시피로 클렌즈를 만들어 섭취하면 홍조나 두드러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원료인 과일과 채소에 농약이 사용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재료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약 평균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해 6.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농약을

과일·채소 들어간 음료로 몸에 필수 영양소 공급
노폐물 배출 효과 커... 영양성분 함유시 효과

사용해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만든 해독 주스를 섭취하면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일 수 있다.

이와 관련, 100% 천연원료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코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뉴트리코어 클렌즈'를 선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뉴트리코어 클렌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7가지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분말형 주스다. 제품에 사용된 모든 채소와 과일은 뉴트리코어 비타민과 특급 공급 계약을 맺은 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다.



업체 관계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관리를 받으며, 검증된 기관의 화학·독성전문가들이 주기적인 농약검사를 실시하는 100%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수확된 친환경 원재료들은 영하 40도 이하로 급속 동결 시킨 후 수분을 기계로 바로 승화시켜 건조시키는 '진동동결 건조' 시스템을 거치기 때

문에 조직의 변화가 없고 효소, 염색소, 비타민을 비롯한 모든 영양소들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보존된 원료들은 즐기, 뿌리, 껍질을 통째로 갈아 넣는 '메크로 바이오텍(전체식)'을 채택한 미세분말 형태로 만들어져 물에 쉽게 풀어지고 흡수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통증 동반 감기엔 '대상포진' 의심

봄날이 찾아온 듯 따뜻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등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추위에 감기 증상과 함께 몸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활성화하면서 나타난다. 두통, 오한, 발열 등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나 체내 수포형 발진

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통증을 동반해 '통증의 제왕'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아 수개월 또는 수년을 고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등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노

력이 필요하다. 국립보건원 에이즈연구센터 연구팀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유발인자인 HIV 감염자 12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에이즈치료제인 AZT, 다른 한 그룹에는 AZT와 홍삼추출물을 함께 투여해 인체면역세포인 CD4 림프구 수치를 관찰했다. 그 결과 AZT만을 투여한 그룹은 CD4 림프구의 수치가 오히려 감소했지만, AZT와 홍삼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그룹은 치료 전 림프구 수치가 1㎍당 320개에서 치료 후 349개로 증가해 면역력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이성주 기자

가치에 가치를 더한 행복을 전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완주 으뜸상품권이 완주 군민과 같이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으뜸상품권이 우리 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 으뜸상품권 | 완주군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3%를 할인 판매



Q 완주 으뜸상품권이 무엇인가요?
완주 으뜸상품권은 완주군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유통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완주 으뜸상품권 어디서 구매하나요?
지금바로 지역농협에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왜? 완주 으뜸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야 내 자녀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가 생기기며 내가 사용한 으뜸상품권이 완주경제를 살립니다.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